

비즈니스일본어 교육의 탄력적인 PBL 학습 적용 연구*

윤석임 _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수업운영 개요 및 방법
- IV. 수업활동 및 결과
- V. 결론

국문초록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본어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나 비즈니스 역할 등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일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회언어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좌의 특성상 ‘전통적 문법학습’과 ‘PBL 학습’을 병행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도했다. 그 결과 학습자는, 잘못된 경어 표현은 개인적 인성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회사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비즈니스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7292).

1. 서론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교수·학습법으로, 현재 대학교 제일선의 교육 장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즈니스일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PBL 학습의 탄력적인 운용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로, 학습 초기에는 양 언어의 유사성이 강조된 학습항목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동시에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는 어휘 패턴이나 문법구조가 유사한 양 국어의 유사성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일정량의 학습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와 같은 교실 활동에서는 학습자의 '이해'에 중점이 놓여 있어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 문법 항목은 좀처럼 '습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배운 내용을 '의사소통 능력'으로 연결해야만 하는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매우 크다.

실제로 비즈니스 접촉장면 조사결과에 의하면, '언어능력' 및 '사회언어능력'과 관련된 마찰 사례는 '경어'가 대부분으로, 단어 자체로 존경이나 겸양의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동사나 명사보다는 문법형식이나 언어운용에 의한 마찰 사례가 많았다. 경어는 대우표현의 하나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공서·회사·호텔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장면에서도 다용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이를 습득하여 적절히 사용하여 의사소통까지 연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어 전반에 관한 연구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것에 비해, 교실 활동 보고에 관한 실천연구는 극히 드문 것도 사실이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비즈니스일본어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비즈니스일본어를 모처럼 학습하고자 하더라도, 학습자는 텍스트의 각 장면이 왜 중요하고 왜 학습해야만 하는지 동기부여나 흥미를 갖지 못한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암기하는 수동적인 학습방식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저하시키고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WEF(World Economic Forum)의 직업 미래보고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문제해결능력’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에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학습 시작 전에 비즈니스일본어 학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텍스트의 각각의 장면 회화가 왜 중요한지를 학습자 스스로 이해하고, 비즈니스일본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는 것에 목적으로 PBL을 운영했다.

II. 선행연구

1. PBL 교수-학습 모형의 수행절차 탐색

PBL(Problem-Based Learning)이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유발과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학습법으로 알려져 있다.

PBL은 1960년 McMaster 의과대학 Barrows, H. S. 교수의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진료 중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의학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수업 진행의 새로운 학습 패러

다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의과대학에서 PBL을 적용하였으며, 점차 다양한 학문에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PBL이 널리 활용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교육을 탈피한 새로운 과정의 수업으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지식을 습득·활용하여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Barrows, H. S.(1994)은, PBL의 중심은 학생이며 좋은 해결책을 얻기 위한 문제해결자는 학습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PBL은 학습자가 기존의 수동적인 지식습득을 탈피하여, 스스로 학습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치는 자기주도학습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교수는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서 학습진행자 혹은 중재자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수는 교육과정 설계자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설계·운영·평가를 담당하고, 피드백 등 각종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효과를 증진해야 한다.¹⁾ Barrows, H. S.(1994)에 근거한 PBL 교수학습 모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Barrows, H. S.의 PBL 교수학습 모형

단계	세부 진행 사항
1단계: 오리엔테이션	- 수업 소개, 진행계획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PBL 수업에 대한 설명 및 학습자의 이해
2단계: 문제제시	- 문제제시

1) Barrows, H. S., Practice-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applied to medical education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4), pp.12~65.

단계	세부 진행 사항
3단계: 문제해결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내 활용될 학습자료 종합 및 의견교환 - 참고자료 지원 및 동기부여, 필요시 교수 참여
4단계: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지 작성 - 결과물 작성
5단계: 결과물 제출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발표 및 소감 발표 - 피드백
6단계: 문제에 대한 결론 및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지식에 대한 종합정리 - 결론 도출 - 평가(자가평가, 팀 내 평가, 교수평가) - PBL 수업 만족도 조사

PBL 교수-학습 모형의 수행절차는 이상의 6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 단계인 ‘오리엔테이션’은 수업 진행 방법이나 계획 및 PBL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이 주가 된다. 이때 교수는 PBL을 위한 전체적인 과제나 참고할 자료를 제시하고 자기주도학습과 협동 학습 참여의 중요성을 말한다. 2단계는 ‘문제제시’이다. PBL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법이므로,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된다. 학습 목표에 적합한 문제가 제시되면 교사는 자기 주도학습 및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과제와 역할 분담(또는 그룹 내 역할 분담)과 개인 역할을 파악하고 실천계획 작성하는 등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이때 제시되는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되거나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과제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협동 학습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배울 수 있는 문제로,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유연성 등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조언자로서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해야 한다. 3단계인 ‘문제해결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학습자는 그룹 내 역할 분담과 개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고자료를 통해 개인, 그룹간의 문제해결방안을 분석하는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교수는 필요에 따라 참고자료를 지원하는 등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4단계의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그룹 내에서 활용된 학습자료를 종합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작성한다. 5단계는 '결과물 제출 및 발표단계'로, 과제를 발표하거나 소감을 발표하고 결과물을 제출한 후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된다.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PBL 과정을 종합정리 한다. 6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결론 및 종합정리' 단계로 학습자는 배운 지식에 대해 종합정리하고, 교수는 적절한 학습자료를 사용했는지 학습자의 지식 획득이 잘 되었는지 등의 평가를 하고, PBL 수업 만족도를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수는 학습자의 주어진 과제의 수행 여부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BL은 세분화 정도나 단계별 순서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기존 학자들의 모형을 살펴보면, Hmelo-silver(2004)는 1단계(시나리오, 문제확인하기)-2단계(가설 만들기)-3단계(지식부족 확인, 새로운 지식 만들기)-4단계(결과물 작성하기, 발표하기)-5단계(종합정리)와 같은 틀로 PBL을 전개했다.²⁾ 또한 조연순(2006)은 1단계(문제 만나기)-2단계(문제해결 계획 세우기, 문제 탐색하기)-3단계(문제해결방안 마련하기)-4단계(발표하기)-5단계(평가하기)의 순으로 진행했다.³⁾ 즉, 기존의 PBL 교수-학습 모형은 수업과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PBL 수업은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2) Hmelo-Silver, C. E., "Problem-based learning: What and how do students lear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3(2004), pp.235~266.

3)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 학지사, 2006, pp.95~17.

교수의 ‘문제제시’ 이후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계획수립’ ‘문제해결’ ‘결과물 제출 및 발표’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문제에 대한 결론 및 종합정리’를 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2.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의 PBL 사례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 문법 항목 중 하나로 경어가 있다. 경어는 대우표현의 하나로, 일본인의 인간 존중관이나 사회적 예법으로서의 언어관, 또는 교양이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많다. 이 중 특히 ‘~いただく’ ‘~(さ)せていただく’와 같은 표현은 마치 상대방(또는 타인)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듯한 어감을 갖는 말로, 한국어와 대응되는 표현이 없어 한국인 학습자가 학습하기가 매우 난해한 일본어 표현이다. 그러므로 상급일본어를 구사하는 학습자에게조차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어 전반에 관한 연구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것에 비해, 교실 활동 보고와 같은 실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비즈니스일본어는 대우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오주령(2003), 신은정(2003)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⁴⁾ 연구 초기에는 실무자의 요구조사와 교재개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교수법 개발’ ‘커리큘럼 개발’ ‘오용분석’ ‘요구표현 분석’ ‘교재분석’ ‘만족도 조사’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업사례 보고와 같은 실천연구는 방극철(2017, 2020)의 두 사례에 불과하다. 방극철(2017)은

4) 신은정, 「비즈니스 일본어 학습용 교재에 관한 연구」, 『同日語文研究』 제17집, 2003, pp.45~62; 오주령, 「사례연구 논문 : 국제 비즈니스 능력 향상을 위한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연구』 제4집, pp.135~147.

‘SRN’(Self Reflection Note, 자기성찰 노트)을 활용한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수업의 성과와 학습효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방극철(2020)은 이를 발전시켜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에 PBL(Problem Based Learning, 문제기반학습)과 SRL(Self Reflective Learning, 자기성찰 학습)을 도입한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의 교육만족도가 상승했고 수업 운영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⁵⁾ 방극철의 연구는 ‘비즈니스일본어’라고 하는 실용교과목 수업에, PBL이나 SRL과 같은 액티브러닝을 도입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업운영 효과나 만족도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실 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려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외에,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PBL뿐만 아니라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BL),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등의 액티브러닝 교수학습법에 관한 선행연구 성과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III. 수업운영 개요 및 방법

1. PBL 적용 교과목

본 연구는 PBL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비즈니스일본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수업을 설계·운영했다. 교과목은 2022년 2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의 하나인 ‘비즈니스일본어’이다. 이 수업에 참가한 학생은 총 15명으로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8명이었다. 수업을 운영하기 전

5) 방극철, 「일본어 교육에서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AL) 수업의 도입과 전략 -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일본학』 제50집, 2020, pp.279~304.

에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일본어 능력시험 N3급 소지자가 6명, N2급은 1명이었다. 나머지 8명은 N3급 문법 문제를 70점 이상 습득한 학생들로, 일본어 초급과정을 마친 후 중급과정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이었다.⁶⁾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PBL 수업적용 과목 개요

과목명	비즈니스일본어
개설시기	2022년 2학기
교과목 시수	16주×150분(75분×2)
학습자 수	15명(남 7명, 여 8명)
텍스트	메구로 마코토, 김옥희, 하야시 요코 저, 『New 스타일 비즈니스 일본어 1』, 동양북스 출판

2. 수업 및 PBL 적용 일정

본 수업은 PBL을 적용한 16주의 수업 중, 1주차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2주차~4주차에 실시했다. 이유는 비즈니스일본어 학습 전에 학습자 스스로 교재의 각 장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비즈니스는 회사 내외의 다양한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이 불가결하고, 각각의 장면에서 올바른 경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예의를 다해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일본어 텍스트는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6)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N3급이 없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N3급 <언어지식(문법)·독해문법>편을 가지고 테스트했다. 그 결과 80점 이상이 3명, 70점 이상이 5명이었다.

본 수업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장면을 설정하여, ‘언어능력’과 ‘사회언어능력’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⁷⁾

〈표 3〉 비즈니스일본어 강좌에서 사용된 텍스트의 구성 및 학습 목표 장면

1과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2과	‘호칭’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3과	‘어떤 일이나 사실’을 알리는 일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4과	‘손님 접대’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5과	‘지시, 의뢰’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6과	‘거절’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7과	‘맞장구’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8과	‘전화를 거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9과	‘전화 받기’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10과	‘연락’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11과	‘사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12과	‘전언’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1995년 J.V.네우스토푸니는 인터액션능력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문화능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다시 ‘언어능력’과 ‘사회언어능력’으로 하위분류했다. ‘언어능력’이란 문법이나 발음 및 표기 등 일본어 구조를 이해하는 등의 능력을 말하며, ‘사회언어능력’이란 대우표현이나 맞장구처럼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오는 언어 규칙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일본 역사나 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

7) 비즈니스일본어 능력이란, 상대와의 관계·장면·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높임말 표현 외에도, 전화응대·약수·명함 주고받는 등의 ‘사회문화능력’과, 메일·보고서·기획서 등을 작성하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강의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언어능력’과 ‘사회언어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을 포함한 일본의 사회·문화·경제 행동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사회문화능력’이라고 불렀다. 네우스토푸니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문화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⁸⁾

〈표 4〉 인터액션능력-J.V.네우스토푸니(1995)

인터액션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사회문화능력
언어능력	사회언어능력	
〈예〉 1. 문법, 어휘, 발음, 문자, 표기 등 일본어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예〉 1. 대우표현(ウチソト, 상하관계)을 장면이나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2. 상대가 싫어하는 사적인 화제 등을 피하고 적절한 화제를 선택한다. 3. 적절한 맞장구를 쳐서 대화를 원활하게 한다. 4. 적절한 칭찬을 한다.	〈예〉 1. 일본문화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2. 식사 매너, 방문 매너 와 같은 일상생활 매너를 이해한다. 3. 일본사회의 질서 등 규율의식을 이해한다. 4.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한다.

최근의 외국 교육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성’에 주목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초급과정에서는 ‘언어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중급과정부터는 목표 언어의 언어 행동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거나 접촉장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일본어 교재의 경우는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상의 다양한 장면을 설정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교재가 주를 이룬다. 이는 ‘교실’에 ‘비즈니스 장면’을 연결하여, 학습자가 취업 후 비즈니스 현장에서 언어 규칙을 적절하게 운용해, 더욱 나은 담화를 실현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8) J.V. 네우스토푸니, 『新しい日本語教育のために』, 大修館書店, 1995, pp.101~115.

경어 표현을 학습함에 앞서, ‘언어능력’과 ‘언어사회능력’이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는 『KJL 일본어학개론』(2016)의 ‘제9장 대우표현’의 [학습과제] <이해> 부분의 회화를 이용하여, 밑줄 친부분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를 제시했다.⁹⁾ 그 결과 15명의 학습자 중 올바른 답을 한 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그림 1〉 학습자의 ‘경어’에 대한 답안 사례

<p><A와 B는 같은 회사의 평사원> A: 明日、社長もいらっしゃいますか。 B: 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A: 社長がご説明しますか。→ご説明になりますか。 B: いいえ、私がご説明になります。</p>	<p><A와 C는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 A: 弊社の新しいキャラクターを拝見しましたか。 C: はい、ご覧になりました。 A: キャッチコピーも読まれましたか C: はい、読まれました。</p>
<p><A와 B는 같은 회사의 평사원> A: 明日、社長もいらっしゃいますか。 B: 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A: 社長がご説明しますか。 B: いいえ、私がご説明になります。</p>	<p><A와 C는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 A: 弊社の新しいキャラクターを拝見しましたか。 C: はい、ご覧になりました。 A: キャッチコピーも読まれましたか C: はい、読まれました。</p>

이상의 학습자 조사결과, 본 수업에서는 2주차에 ‘언어능력’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고, 3주차와 4주차에 ‘사회언어능력’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기로 했

9) 조남성 외, 『KJL 일본어학 개론』, 책사랑, 2016, pp.226.

다. 그리하여 2주차에는 전통적 교수중심 방법으로 경어에 관한 문법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팀별로 과제를 제시했다. 3주차와 4주차에는 대우표현의 ‘사회언어 능력’ 습득을 위해, 비즈니스일본어 전반에 걸쳐 있는 일본의 ‘우치소토(ウチソト)’와 ‘상하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구체적 수업 일정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의 PBL 일정표

주차	수업내용
1주차	오리엔테이션 - 강의의 흐름 이해, PBL(문제해결학습) 강의의 이해, 학업성취 평가방법 이해, 팀 나누기 - ‘비즈니스일본어’와 ‘생활 일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해 - 접촉장면에서의 인터액션능력(언어능력, 사회언어능력, 사회문화능력) 습득의 중요성 이해 - 학습자의 경어 표현에 대한 ‘언어능력’조사 -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 조사
2주차	1차시(75분): PBL 학습을 위한 사전 온라인 학습1 - ‘언어능력’ 학습. 2차시(75분): 팀별 문제해결 및 활동1
3주차	1차시(75분): PBL 학습을 위한 사전 온라인 학습2 - ‘사회언어능력’ 학습<우치소토/상하관계> 2차시(75분): 팀별 문제해결 및 활동2
4주차	1차시(75분): 전체 팀 토의 및 문제해결 활동3 2차시(75분): PBL 학습의 정리 및 피드백
5주차	1과
6주차	2과
7주차	3과
.	.
.	.

데즈카마유코 외(手塚まゆ子 他)은 액티브러닝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 수업의 여건을 조성할 것, (2)사고를 활성화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이 되도록 할 것, (3)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도록 할 것, (4)교양일본어와 전공일본어를 나누어 수업을 디자인할 것을 주문했다.¹⁰⁾ 이 중 (4)의 교양일본어와 전공일본어 수업을 나누어 디자인한다는 것은 각 수업에 맞게 응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수업에서는 ‘언어능력’ 습득은 전통적 교수중심학습으로 하고, ‘사회언어능력’ 습득은 PBL 학습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1단계-오리엔테이션 및 학습자 일본어능력 조사, 2단계-온라인강의, 3단계-문제제시, 4단계-문제해결, 5단계-결과물 제출 및 종합정리로 나누어 PBL 수업을 했다.

IV. 수업활동 및 결과

1. ‘언어능력’ 키우기

비즈니스일본어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대우표현인 ‘경어’의 사용에 있다. 경어 학습은 크게 (1)어휘적인 내용, (2)문법적인 내용, (3)상대 및 장면 에 따른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어휘는 오로지 학습자가 스스로 암기해야 하지만, 문법적인 내용과 상대 및 장면별 일본어 사용은 교사의 가이드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언어능력’ 습득에서는 전통적 교육의 학습 방식에 의해 온라인을 통해 강의하고, 수업 후에는 각각의 학생에게 개별과제를 주어 응용 및 문제 풀이를 하게 했다(전통적 교수중심수업). 그리고 나아가 팀별로 주어진 경어를 각각 정리한 후,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오프라인상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전체토의를 거쳐 종합정리하게 했다(문제해결

10) 手塚まゆ子 他, 「反転授業における相互作用のある対話の分析- 日本語上級クラスの文法科目を対象に」, 『日本語教育研究』第49輯, 2019, pp.39~54.

학습). 팀은 크게 5명씩 3팀으로 나누어 학습 과제를 수행했다. 팀 활동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6〉 ‘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팀 활동 주제

팀명	문제해결 주제 - 언어능력 키우기		
	전통적 교수중심 강의 및 과제	문제해결학습	
1팀(5명)	개별과제	존경어: 문법적 표현 이해 및 정리	
2팀(5명)		겸양어: 문법적 표현 이해 및 정리	
3팀(5명)		대우표현으로서의 명령·부탁·허락/ : 문법적 표현 이해 및 정리	
		종합정리 (결과물 제출)	

경어는 크게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 미화어로 구분된다. 이 중, 교수중심 온라인 수업에서는 존경어와 겸양어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교재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존경어 お(ご)~です/ お(ご)~になる/ お(ご)~なさる/ ~られる, 겸양어 お(ご)~する, お(ご)~いたす, ~いたす, 그리고 대우표현으로서 명령·부탁·허락을 나타내는 ~(さ)せていただく, ~(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お(ご)~ください, お(ご)~いただく, お(ご)~いただける를 대상으로 했다.

팀별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① 존경어: 청자의 동작·작용·상태·소유 등에 대해 화자가 그 사람을 높게 대우하는 말.

예: お(ご)~になる, お(ご)~なさる, ~られる, お(ご)~です

- ② 겸양어: 화자 자신이나 화자 측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통해 그 행위가 미치는 사람을 높게 대우하는 말

예: お(ご)~する,お(ご)~いたす...

③ 대우표현으로서의 부탁, 허락, 명령

행위자가 나나 내 쪽: ~(さ)せていただく

~(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

행위자가 상대: お(ご)~ください

お(ご)~いただく、

お(ご)~いただけますか

또한, 학습자는 전체토의에서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결과물을 발표했다.

<그림 2> 학습자의 '언어능력' 종합결과물

<경어 - 언어능력>

	명사	동사	이형용사 ㅅ형용사
존경	1. ㅁ(ㅇ)~ です 2.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3. ㅁ(ㅇ) ~ ㅁ(ㅇ) ㅁ(ㅇ) 4.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1. ㅇ(ㅇ) ㅇ(ㅇ) ㅁ(ㅇ) ㅁ(ㅇ) ㅁ(ㅇ) 2. ㅇ(ㅇ) ~ ㅁ(ㅇ) ㅁ(ㅇ) 3. ㅇ(ㅇ) ~ ㅁ(ㅇ) ㅁ(ㅇ) 4.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1. ㅇ(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2. ㅇ(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경양	1.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 ㅁ(ㅇ) ㅁ(ㅇ) 2.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1.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 ㅁ(ㅇ) ㅁ(ㅇ)	
명령 / 부탁 / 허락	주어 (상대) 주어 (나/내쪽)	1.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2.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1.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2.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1.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2. ㅁ(ㅇ)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1.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2. ~ ㅁ(ㅇ) ㅁ(ㅇ) ㅁ(ㅇ) ㅁ(ㅇ) ㅁ(ㅇ)

2. '사회언어능력' 키우기

대우표현은 이야기의 장면이나 이야기의 의도 등에 따라 경어체나 정중체나 보통체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반말을 하기도 한다. 또한, 친근한 말투

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경멸하는 말투로 인간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 비즈니스일본어에서는 경어체를 학습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는 비즈니스 장면에서는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즈니스일본어 학습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어 표현’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긴장도나 두려움이 크다. 또한, 학습자는 텍스트의 각 장면이 왜 중요하고 왜 학습해야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PBL 수업은 학습자의 동기부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3주차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비즈니스일본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3장 2절 <표 3>의 텍스트 구성 및 학습 목표 장면과 관련된 테마를 자유로이 정하여 마찰장면과 이유를 조사하고, 커뮤니케이션상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화 장면을 재구성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과제는 3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문제해결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7> ‘사회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팀 활동 주제

팀명	문제해결 주제 : ‘사회언어능력’ 키우기	
1팀(5명)	‘인사’에 관한 마찰장면 조사 및 담화 재현	종합결론 (결과물 제출)
2팀(5명)	‘전화’에 관한 마찰장면 조사 및 담화 재현	
3팀(5명)	‘손님접대(안내)’에 관한 마찰장면 조사 및 담화 재현	

본 수업의 텍스트에서는 경어 표현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먼저 일본어 경어 표현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친소관계(親疏關係)’와 ‘상하관계(上下關係)’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일본어의 경어는 ‘친소관계’와 ‘상하관계’가 핵심 키워드다. 친소관계는 횡적인 인간관계로 가까운 관계나, 먼 관계에 따라 다른 문장이나 어휘를 나누어 사용한다. 즉 자신의 영역 안인 우치(ウチ)에 있는지, 아니면 밖(ソト)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상하관계는 종적인 인간관계로 나이나 지위 등이 많은 사람을 대우하는 표현이다. 다음의 <그림 3>은 학습자의 담화재현 결과물과, 피드백에 의한 종합결과물이다.

<그림 3> 학습자의 담화재현 결과물과 피드백에 의한 종합결과물

<p>인사<결과물-학습자> 12월 31일^ㄷ 韓国人:(隣の同僚に) あっというまに 一年がすぎました。^ㄷ 日本人:金さんも、今年、日本まで来てがんばってたね。来年も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ㄷ 1월 1일 오전, 출근 후.^ㄷ 韓国人:(隣の同僚に)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ひます。今年も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ㄷ 日本人: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ひます。^ㄷ</p>	<p>인사<종합결과물-피드백> 12월 31일^ㄷ 日本人:(内の部署の回して一人ずつ挨拶をする。) 支配人、今年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来年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ㄷ 1월 1일 오전, 출근 후.^ㄷ 日本人:(内の部署の回して一人ずつ挨拶をする。) 支配人、去年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年もよろしくお願ひします。^ㄷ</p>
--	--

<p>전화<결과물-학습자> 日本人:お電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松本社でございます。^ㄷ 韓国人: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社の李と申します。^ㄷ 日本人:こちらこそ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ㄷ 韓国人:中村さん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ㄷ 日本人:恐れ入ります。あいにく中村さんは席をはずしています。^ㄷ 韓国人: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ㄷ</p>	<p>전화<종합결과물-피드백> 日本人:はい、松本社でございます。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ㄷ 韓国人:松本社さんですか。私、* *社の李と申します。お忙しいところを恐れ入りますが、営業部の中村さんをお願いします。^ㄷ 日本人:* *社の李様でございますね。恐れ入りますが、あいにく中村は席はずしてしております。よろしければ連絡取りまして折り返しお電話差し上げ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ㄷ 韓国人:それでは、韓国の* *社会の李から電話があったとお伝えください。^ㄷ 日本人: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ㄷ</p>
--	--

<p>손님접대(안내)<결과물-학습자>」 (営業部の社員との予約がある人がきて、連絡をお願いする。)」</p>	<p>손님접대(안내)<종합결과물-피드백>」 (営業部の社員との予約がある人がきて、連絡をお願いする。)」</p>
<p>田中:あのJBTの田中と申しますが、営業の小林さんと予約があるんですが、」 韓国人:はい、何時のご予約でございますか。」 田中:3時からでございます。」 韓国人:はい、お座っておまちくださいませ。」 (お客さんはいすへ案内して電話で営業の人に伝える。)」 営業部の村尾: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営業の村尾です。」 韓国人:あ、今、ホテルのロビーに小林さんと3時の予約の田中さんが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 村尾:はい、伝えておきます。お名前をお願いします。」 韓国人:ユと申します。お願いします。」 」 」 」 」</p>	<p>田中:あのJBTの田中と申しが営業の小林さんと予約があるんですが、」 韓国人: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何時のご予約でございますか。」 田中:3時からでございます。」 韓国人:お座りになって、おまちくださいませ。」 (お客さんは席へ案内した後、営業に電話する。)」 村尾: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営業の村尾です。」 韓国人:ゲストサービスのユです。今、ホテルのロビーに小林さんと3時の予約の田中様が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 村尾:はい、伝えておきます。」 韓国人: お願いいたします。」 (お客様ほうへのいって伝える。)」 」 お客様、今、小林に連絡いたしましたので、もうすぐ参ると思えます。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p>

온라인 수업 이후 학습자는 ‘친소관계(親疏關係)’와 ‘상하관계(上下關係)’와 관련된 비즈니스 상황의 마찰 사례를 조사하고, <그림 3>처럼 한 장면을 선택해 회화장면을 만들어 결과물을 제출했다. 1팀의 마찰사례의 담화재현은 ‘인사’ 장면으로 한국인이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옆 동료직원에게 송년 인사와 새해 인사를 한다. 그러나 일본인 직원은 12월 31일 저녁 퇴근 때 인사를 하고, 또 1월 1일에 또다시 부서의 전 직원에게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는 걸 보고 위화감을 느낀 장면이다. 학습자는 비즈니스에서 일본인은 나이보다도 상하관계를 중요시하고, 인사에서도 절차와 형식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팀의 ‘전화응대’는 한국인의 실패사례이다. 한국인은 비즈니스 전화 통화 중, 마침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화 드리라고

할까요?’ ‘다시 전화 주시겠습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본인의 전화 예절은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괜찮으시다면 연락해서 전화드리라고 할까요?(よろしければ連絡取りまして折り返しお電話差し上げ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라던가, ‘용건을 전해 드릴까요?(ご伝言をお預かりいたしましょうか)’처럼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일본어 전화응대에는 다양한 관용표현이 있음을 인지했으며, 이를 잘 못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대단히 결례된 행동임을 알게 됐다. 3팀의 ‘손님접대(안내)’는 일본의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호텔 영업부 사람과 약속이 있어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장면이다. 한국인 직원은 처음 하는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차분히 잘 대응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처음 상대에게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한 후 전달사항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부에 연락한 후에는, 다시 고객에게 돌아가 전화 연락 드렸으며 직원이 곧 내려 올 것임을 다시 한번 전달해야 한다. 학습자는 방문객이 면회를 요청한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 것인지 인식했으며, 또한 해당 부서에 연락할 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하고 용건을 말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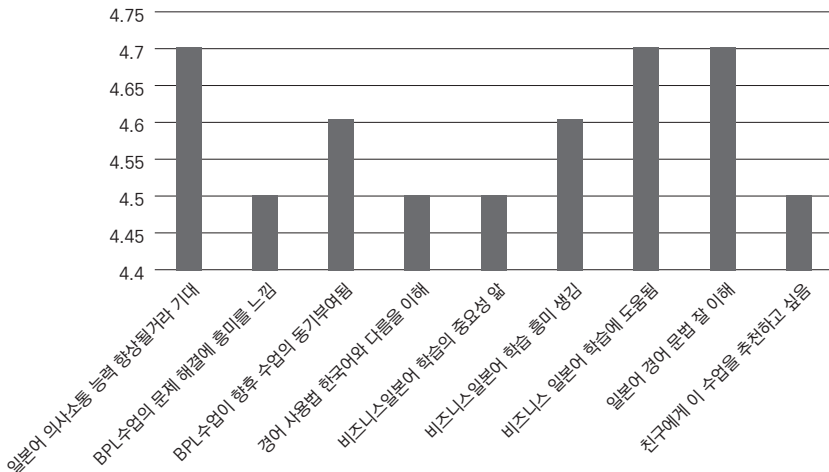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본어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나 참가자와 같은 비즈니스 역할 등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회언어능력’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이번 마찰장면 사례조사를 통해, ‘비즈니스일본어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전공생이라면 뒤로 미룰 수만은 없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다.

3. 사후설문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라는 입장에서 학습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제 일상 생활에서는 보통체인 「だ」체의 활용도 크지만, 초급단계에서는 정중체인「です」체와 「ます」체를 도입한다. 이후 중급단계에서는 한·일 양 언어의 표현형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용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갭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비즈니스일본어는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 학습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진행된 PBL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았다. 설문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흥미와 동기부여, 향후 진행될 학습과 실력향상에 대한 기대, 이 수업에 대한 추천 의사에 대해 총 8개 항목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실시했다.

〈그림 4〉 사후설문



설문 결과 4.58/5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 중 특히 높은 점수가 나

온 것은 경어문법(언어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점과, PBL 학습으로 비즈니스일본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학습자 스스로 담화를 재현하며 문제해결에 흥미를 느낀 부분이었다. 한편 마찰사례장면을 조사하고 담화를 재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일본계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마찰 사례를 물어 보거나, 책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화를 재현해 보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차이점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학습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부분적이지만 PBL을 탄력적으로 응용·도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학습을 이끌 수 있었다.

V. 결론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교육은 새로운 시점에서의 질적 강화를 교육을 현장에 요구한다. 그러므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비즈니스일본어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즈니스일본어 교육에서도 학습자가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이에 본 강좌는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높은 호기심과 동기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6주 강의 중 학습 초기에 3주간을 할애하여, ‘언어능력’ 키우기와 ‘사회언어능력’ 키우기를 실행했다.

본 수업에서는 3주를 전부 PBL 수업으로 기획했다. 그러나 경어 표현에 대한 학습자 조사결과, 문법학습(언어능력)이 정확하게 습득되어 있지 않았으며, 애써 습득한 어려운 문법도 실무적인 장면에서는 화용적 쓰임을 잘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3주 중 1주를 전통적인 문법 수업에 의한 ‘언어능력’ 향상, 나머지 2주를 PBL 수업에 의한 ‘사회언어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양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교실 활동을 운영했다.

‘언어능력’향상을 위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가이드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전통적 교수 중심수업의 온라인 강의를 하고, 수업 후에는 각각의 개별과제와 팀별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능동적인 학습자 참여를 위해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전체토의를 거쳐 종합정리하여 결과를 제시하게 했다. ‘사회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PBL 수업에서는 경어 표현의 핵심 키워드인 ‘친소관계’와 ‘상하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텍스트의 학습 목표 장면과 관련된 테마를 팀별로 자유로이 정하게 한 다음, 마찰장면을 조사하고 대화 장면을 재구성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학습자는 팀별로 각각 ‘인사’ ‘전화’ ‘손님접대(안내)’에 관한 마찰장면을 조사한 후, 담화를 재구성하여 결과물을 제출했다. 제출된 과제는 피드백을 거쳐 종합결과물로 생성되었으며,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잘못된 경어 표현은 개인적 인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비즈니스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PBL 수업은 교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PBL 수업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교수자의 PBL에 대한 이해 부족과, PBL 수업을 위한 적합한 문제를 개발하고 적절한 피드백에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티브러닝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나누어 디자인하고, 각 강좌마다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4년 10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24년 11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11월 27일

참고문헌

- 방극철, 「SRN(Self Reflection Note)을 활용한 전공일본어교육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 제82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7.
- _____, 「일본어교육에서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AL) 수업의 도입과 전략 -비즈니스일본어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일본학』 제50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
- 신은정, 「비즈니스일본어학습용 교재에 관한 연구」, 『同日語文研究』 제17집, 동덕여자대학교 동일어문학회, 2003.
- 오주령, 「사례연구 논문 : 국제 비즈니스 능력 향상을 위한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연구』 제4집, 한국일어교육학회, 2003.
- 조남성 외, 『일본어학 개론』, 책사랑, 2016.
-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 手塚まゆ子 他, 「反転授業における相互作用のある対話の分析- 日本語上級クラスの文法科目を対象に」, 『日本語教育研究』 第49輯, 韓國日語教育學會, 2019.
- J.V. 네우스트보니, 『新しい日本語教育のために』, 大修館書店, 1995.
- Barrows, H. S., Practice-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applied to medical education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94).
- Hmelo-Silver, C. E., “Problem-based learning: What and how do students lear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3 (2004).

Abstract

Interaction Ability and Business Japanese Education

: A Study on the Flexible Application of PBL(Problem Based Learning)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Seok-yim, Yoon

This course was planned as a PBL class for 3 out of 16 weeks. However, as a result of the learner's survey, grammar learning was not acquired. In addition, the acquired grammar was pragmatically wrong in a practical scene. Therefore,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was practiced for 1 week out of 3 weeks. And the remaining 2 weeks were PBL classes. In the class to improve grammar ability, a teacher's guide was needed. So, online lectures centered on professors were conducted, and assignments were presented after class. In the PBL class for improving social language ability, lectures were given on 'pro-social relations' and 'comment relations', which are the core keywords of honorific expression. And the learner decided on a team to investigate the business friction scenes and reconstructed the dialogue scenes. The learner investigated the friction scenes related to 'Greetings', 'phone calls', and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And selected one of the scenes and submitted the results. The submitted assignment was generated as a comprehensive result through feedback. And the learner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usiness learning through this process. PBL is one of the learning methods according to the changes and demands of the times. However, it is not easy

www.kci.go.kr

to fully apply PBL in the educational field. However, if classes are flexibly designed for each course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class, it is thought that learner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learning.

Keywords

Business Japanese education, interaction skills, social language skills, PBL learning, problem based learning